

기자사위 보게 되서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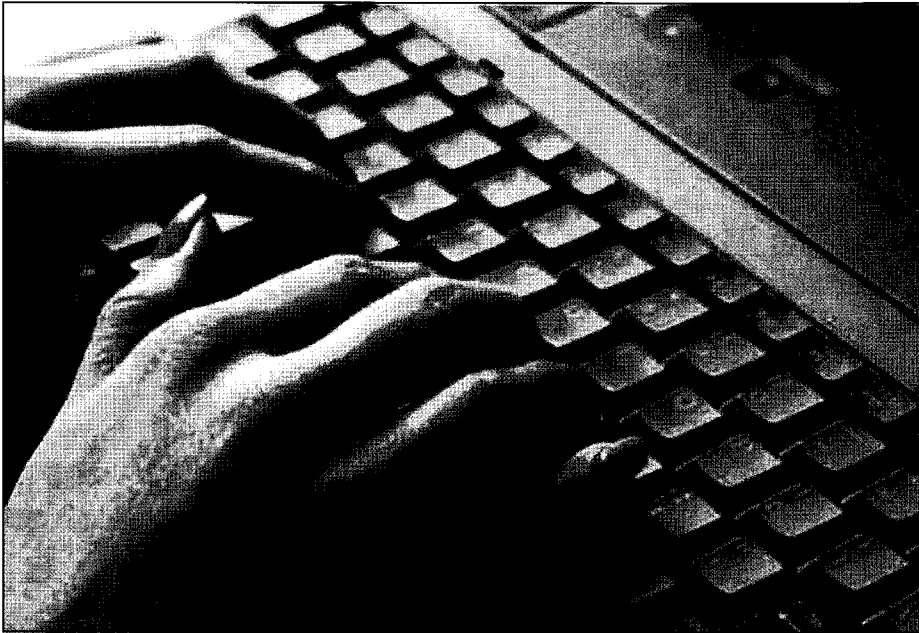


김재설

컴퓨터월드 기자

kjc@infotech.co.kr

네트워크/통신분야, 부산 토박이, 가족은 6개월전에 결혼한 아내와 아들내외, 손자 둘, 손녀 하나가 있음, 모두다 페르시아 고양이(아내는 배고...), 저의 독서는 '출장교배 전문 고양이'인데 KCRC회원들께는 공짜로 빌려드리죠...



나는 참 엉겁결에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 애당초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내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에 올라와 하고 싶던 공부를 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 지 약 일곱 달 가량 지났을 무렵, 같이 자취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몇몇 선배로부터 서너 가지 직업을 소개받았던 나는(이 때 내게 제의가 들어온 일자리는 월급이 30만원인 곳에서부터 부담스러울 만큼 조건이 좋은 곳까지 매우 다양했다.) 친구에게 소개받은 선배에게 마음이 끌려 그가 소개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다. 바로 지금 내가 다니는 대청정보시스템에서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파는 것이 내게 제시된 일이었다. 영업사원이러는 일이 크게 마음을 끌지는 못했지만 소개해 준 사람을 믿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을 본 사람이 컴퓨터월드의 이성하 주간님이었다. 의례적인 얘기를 나누던 주간님은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임금이 살인적인데 다닐 수 있겠냐?”고 물었다. “30만원 이하는 곤란합니다.”고 대답했더니 편집부장님을 소개해 다시 면접을 보게 됐다.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던 편집부장님은 자기소개서의 ‘어학을 전공했다.’는 부분을 읽고 “영어냐, 일본어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그런 어학이 아니고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고 국어학을 전공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은 할 거 아냐?”, “하나도 못 합니다.”. “컴퓨터는 얼마나 하나?”라고 묻는다. “전혀 못 합니다.”, “인터넷은 잘 하나?”, “어제 처음 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러자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럼 잘 하는 게 뭐냐?” 하기에 “잘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상당히 잘 할 것 같은데?”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뽑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면접 내용이 우수한 덕분에 나는 엉겁결에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 실력이 겁나게 좋으니까 저렇게 당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너무 정직해서 마음에 들어 뽑은 건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먹고 8시 30분 출근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나의 직장생활은 시작되었다. 취직한 뒤 약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전자신문이나 컴퓨터월드 과월호를 보는 일이었다. '기계'라거나 '과학' 따위를 푼 시도 싫어하던 나로서는 생소한 용어를 익히는 일이 제일 힘들었고, 컴퓨터나 정보통신 분야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였다. 그래서 이 때 컴퓨터와 친해지고자 프리셀(카드게임)을 시작한 것이 지금은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컴퓨터와도 엄청나게 친해졌다. 눈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게임을 했으니가.

처음에는 취재 약속을 잡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려웠다. 나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에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나치게 쾌활한데...'

취재를 나가도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았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자신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을 뒤져 관련 분야의 자료를 모으고, 다른 잡지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업체에서 나온 자료들도 모아서 보기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공부를 좀 하려니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주간님, 편집장님, 취재부장님 등이었다. 사무실에 앉아서 문계지 말고 직접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라는 거였다. 그런데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내가 직접 겪어본 바로도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는 제대로 취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자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느 업체에 찾아가 취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신참 기자라고 생각했는지 뭇 물어도 자기는 아는 게 잘 없다는 등, 기자님 생각은 어떠냐는 등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김기자는 기자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래

서 골이 난 김에 "기자 경력을 알면 답이 더 잘 나오는 모양이죠. 잘 아는 게 없는데 난 별로 많이 듣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아는 것만 얘기해봐요."하고 면박을 준 적이 있다. 이런 적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회사에 방해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출근해서 내가 취재하려는 분야에 대해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고 나면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자취방에서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개념도 세우고 취재하러 나가면 뭘 물어볼 건지를 생각도 하면서 이들 동안을 자취방에서 보내고 취재를 나갔다. 여전히 아는 것이라고는 새발의 피만큼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라도 알아듣고 한 두 마디 질문도 던질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기자간담회 같은 행사에 가면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만한 사람도 없으니 선배들이 기자간담회에 대신 갔다오라고 하면 그것보다 싫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는 곧 없어졌지만 병아리 시절에는 참 힘든 일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건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였던 것 같다. 처음 두세 달 동안 취재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 재미있었던 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든지, 이런 사람은 본받을만 하구나, 또는 저러면 안되겠다 등등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소득이 아니

있을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자라는 직업에 100점을 줘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작년 겨울 결혼하기 전 신랑이 기자라고 처갓댁 어른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동네 사람들이 장모님께 '기자 사위 두게 돼서 좋겠네.'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 달에 버는 돈도 내가 아내의 1/3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다. 그것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이기보다는 아마도 기자가 사회에서 특권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을 수 있는 직업이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제력에 상관없이 생활이 호화스러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를 버느냐로 자신의 한계를 결정지를 필요는 없지만 기자이기 때문에 더 절제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고칠 부분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달이 되어서는 타성에 젖어 지내다가 기사를 쓸 때면 아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처음에는 내 야심에 부끄럽고 독자들에게 미안하던 것이 지금은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다.

기자라는 직업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KCRC**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건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였던 것 같다.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소득이 아니었을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자라는 직업에 100점을 줘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